

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의 절제 중심으로-

권재현, 서영욱*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Study on the Impact of IT Suppor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bsorption Capacity: Focusing on Organizational Temperance

Jae-Hyeon Kwon, Young-Wook Seo*
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통합역량 IT 지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직의 절제와 흡수역량이 매개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사기업과 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26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Smart PLS 3.0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통계 분석결과 첫째,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절제의 하위 요인인 조정과 적응력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에도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의 절제는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통합역량 IT 지원과 흡수역량의 관계에서 조직의 절제를 매개로 했을 때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IT 기술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조직 윤리 차원의 요인으로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한 흡수역량의 선행 요인으로써 조직의 윤리적 요인도 선행 요인으로써 작용함을 규명함에 따라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경영자에게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흡수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 흡수역량이 필수적인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IT 인프라 구축과 조직의 미덕 함양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IT Supports for Iintegration Ccompetency(ITSIC)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using organizational temperance and absorption capacity as medium.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with Smart PLS 3.0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over a total of 126 participant people's surveys for the employees. First, the ITSIC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alignment and adaptability and also on absorption capac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organizational temper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absorption capacity. Third, when the organizational temperance wa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IC and absorption capacity, it had a indicated a positive effect. Fourth, absorption capacity had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ffer from the existing studies through by validating validation of correlations correlations by extending IT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organizational ethical factors. In additio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ethic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 also act as leading factors of absorption capacity. ITSIC helps managers make balanced decision-making, whi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absorption capacity by giving members a positive perception, ultimately having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ppropriate IT infrastructure and cultivating organizational virtue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in which absorption capacity is essential.

Keywords : IT Support, Organizational Alignment, Organizational Adaptability, Absorption Capacity,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Young-Wook Seo(Daejeon Univ.)

email: ywseo@dju.kr

Received July 30,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Revised September 2,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IT 융복합을 통해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 생태계 전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 상황이다[1]. 기업이나 조직의 신속한 대응 역량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업의 성과 격차는 보유 자원의 종류와 양적, 질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2,3]. IT는 기업에서 운영 및 전략 관리의 필수 요소이다.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 전략과 연계된 IT 기술 지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와의 협상력 강화 및 효과적으로 신제품, 신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4-6]. 기업의 IT 기반은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우위에 중요 요소이며, 기업에 더 나은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7].

하지만 IT와 조직혁신의 상관 관계의 연구에서 혁신의 약 90%가 실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혁신의 요소로 IT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이 IT 역량과 조직적 가치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선행 연구도 있었다[8]. IT 기술과 혁신성과 또는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문화, 동적 능력, 조직 구조 등을 매개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나, 윤리적인 요인과 연계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9].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신뢰 붕괴로 인한 조직 성과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조직에서 윤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0].

본 연구는 통합 역량 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직의 윤리적 측면인 절제가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합역량 IT 지원

IT 능력은 기업의 경쟁 전략 수행 및 신규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조직성격을 낸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IT 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IT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자보다 우

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11]. IT 능력은 전사적 조직 역량을 나타내며, 자원 통합 및 재 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8,12]. 뛰어난 IT 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 전략 IT 지원과 핵심역량 IT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성과 창출과 경쟁우위를 향상에 영향을 준다[13].

기업 역량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사용은 기업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다[12]. 역량이란 능력보다 넓은 범위로 기업 고유의 자산, 지식,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14].

기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IT 지원은 통합역량 IT 지원, 시장접근 IT 지원, 기능 관련 IT 지원으로 구분한다. 이중 통합역량 IT 지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축, 프로세스 유연성 개선, 공급망 통합 지원 등의 IT 활용 수준이다. 본 연구는 통합역량 IT를 통해 자원 효율적인 활용이 절제와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2 조직의 미덕(절제)

미덕(virtue)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부 가치인 에토스를 의미한다[15]. *善(선, Virtuousness)*이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열망이다. 미덕의 어원은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그리스어의 “*are^te*”에서 유래 되었으며, 사람들을 뛰어난게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개인의 미덕을 조직으로 확장한 연구에서도 조직의 주요 미덕으로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의 4가지로 정의했다[16]. 조직의 미덕은 개인의 미덕을 키우는 작용을 하며, 조직의 미덕을 갖추는 것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조직의 미덕으로 인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직을 성장하게 하고 활력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증대시킨다.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덕은 조직의 선순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17].

기존 국내 경영학 인사조직 분야에서 미덕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조직의 미덕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8], 조직 시민 행동과 조직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9]. 또한, 이성화[20]의 연구에서 개인이 인식한 조직 미덕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하였고, Chatterjeel[21]는 IT 기술과 조직 윤리가 혁신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조직의 미덕은 조직 내에서 ‘완충 효과’로써 역할을 하며, 조직과 구성원의 탄력성, 연대감, 효능감을 증대시켜 부정적인 관점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미덕의 ‘증폭 효과’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자본의 강화, 긍정적인 정서, 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22]. 본 연구는 조직의 미덕중에 절제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절제의 하위 요인으로 조정과 적응력은 조직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목표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력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적합한 조직 활동을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3 흡수역량

흡수역량이란 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외부 지식에서 찾아내고 인식하여 소화한 후에, 내부의 공정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혁신과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흡수역량에서 개인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통제하고 전달하고 중간에서 유용한 정보를 관찰하는 것이다[23].

외부의 지식은 조직 내의 것과 상이하고, 범위도 다양하며 용어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차이가 있어 조직 내부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직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형 및 발전을 시켜야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지식 흡수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쉽도록 경영진의 관리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의 흡수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24]. 예를들어 개발중심의 조직에서는 참여자의 지식공유 수준에 따라 신제품 개발 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25]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Malhotra[26]은 흡수역량이 활발한 조직은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원기반 이론 측면에서 기업의 자원은 가치 있고 희귀하고 쉽게 모방이나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말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경쟁 시장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27]. 기업 자원의 종류는 물질 자원, 무형 자원인 인적자원 그리고 조직 자원 역량 등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자원과 역량은 창조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흡수 역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28]. 본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이 조직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 역량 IT 지원과 조직의 절제인 조정과 적응력이 흡수역량 통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Fig. 1).

3.2 가설설정

3.2.1 통합역량 IT 지원과 조직의 절제

통합역량 IT 지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축, 프로세스 유연성 개선, 공급망, 업무 통합 및 간소화를 IT 활용 수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IT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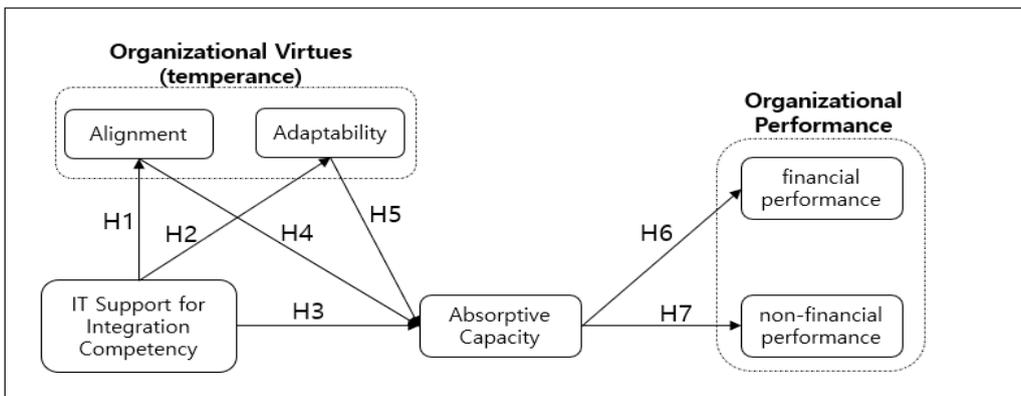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게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고 관리, 조달, 물류 등을 개선하고, 설계비용과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절제란 조직의 조정과 적응력으로 나누어지며, 절제를 갖춘 조직은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심하고 균형감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문제 상황에서 조직의 미덕이 탄력성, 연대감, 효능감을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보호하여 조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유발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IT 제공은 조직의 미덕 형성을 강화하여 조직의 즉흥력 증대를 통해 조직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역기능을 완화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하였다[21,29].

그리고 IT 기술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흡수역량이 필요성을 강조하였고[30], 기업 간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과 관리자의 태도, IT 이용 경험, 기업 자원이 조직의 흡수역량을 매개했을 때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4,2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가설1부터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통합역량 IT 지원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의 절제와 흡수역량의 관계

조직의 절제의 하위 요소인 조정과 적응력의 두 요인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조직의 맥락적 양면성으로 그 개념으로 설명된다[31,32]. 긴장과 균형을 이뤄야 하는 복잡한 조직 환경에서 경영진들은 조직의 맥락적 양면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3].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예: 조직지식, 공식화, 사회통합 메커니즘)에 따

라 흡수역량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4]. 특히 Jansen[35]의 연구에서 조직적 메커니즘 요소인 조정 능력이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의 조정은 상호 기능 보완, 의사결정의 참여, 직무 순환 등을 말한다[36]. 이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윤리적 요소가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 가설 4,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4 : 조직의 조정(Alignment)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조직의 적응력(Adjustment)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흡수역량과 조직성과의 관계

흡수역량은 조직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 동화, 전환,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과정이다. 이는 변화와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동태적 역량으로 기술 협력을 통해 성과가 발생하는 조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30]. 흡수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은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 및 통합을 통해 외부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37,38]. 흡수역량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30,3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흡수역량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자 아래 가설 6, 가설 7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흡수역량은 비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변수별 선행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변수의 각 항목의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Table 1).

통합 역량을 위한 IT 지원은 Rivard et al.[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 중 프로세스 유연성, 공급망 통합,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하는 수준 등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조직의 미덕 중 절제는 Gibson et al.[33]의 조정과 적응력에 대한 6개의 측정 문항을 활용했다. 조정은 조직의 경영체계가 회사 전체의

목표달성, 자원의 낭비 최소화, 상반된 목표 부여 최소화 등 여부로 측정하였고, 적응력은 조직의 경영체계가 기존 관행, 전통에 대한 개선 권장, 변화 상황에 유연성, 사업 목표에 맞게 발전 여부를 측정하였다. 흡수역량은 Jansen et al.[35]이 제시한 실행적 흡수역량의 변환과 활용 문항 중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변환은 외부 지식을 활용한 사업기회 창출, 시장 동향 및 신제품/서비스 논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활용은 성과창출 활동에 대한 인식, 지식 활용 방법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였다. 조직성과 중 재무성과는 Chandler and Hanks, 노두환 [40,41]이 제시한 매출, 이익, 시장점유율 증가의 3문항을 측정하였고, 비 재무성과는 Martell&Carroll[42]의 연구에서 신제품/신규서비스의 경쟁우위, 경영성과 및 목표 향상, 자원관리 효율성 3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분석 및 가설 검증

수집된 표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PLS-SEM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LS-SEM은 최소제곱으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내재적 잠재변수에 대한 예측과 설명을 중점으로 한 기법으로 탐색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43].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PLS-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4.1 표본의 특징

본 연구는 일반적인 조직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변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1개월간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회수된 응답 137부 중 부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하고 126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 조사 기업 구분은 사기업 66%,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25%, 기타 9%로 수준으로 비교적 사기업의 비중이 높은 표본 집단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집중 타당성 검증

을 위해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 평균분산추출, 복합신뢰도, 크롬바흐 알파 값을 분석하였다[44].

각 지표의 측정기준은 요인적재량과 평균 분산 추출 값은 0.5 이상, 복합신뢰도 값과 크롬바흐 알파 값은 0.7 이상을 충족할 때 허용 기준으로 보았다[45-47]. 측정 도구들의 집중 타당성과 같으며, 판별 타당성은 모두 확보하였다(Table 1, 2).

Table 1.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s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s α	
ITSIC	ITSIC1	0.948	0.964	0.870	0.950
	ITSIC2	0.938			
	ITSIC3	0.910			
	ITSIC4	0.935			
Align.	Align1	0.847	0.859	0.671	0.754
	Align2	0.788			
	Align3	0.820			
Adap.	Adap1	0.851	0.923	0.800	0.875
	Adap2	0.917			
	Adap3	0.914			
A.C.	AC1	0.884	0.918	0.737	0.881
	AC2	0.833			
	AC3	0.888			
	AC4	0.827			
F.P.	FP1	0.947	0.960	0.888	0.937
	FP2	0.947			
	FP3	0.933			
N.F.P.	NFP1	0.844	0.905	0.760	0.842
	NFP2	0.928			
	NFP3	0.841			

* ITSIC(IT Support for Integration Competency), Align.(Alignment), Adap.(Adaptability), A.C.(Absorptive Capacity), F.P./N.F.P.(Financial/Non-Financial Performance)

Table 2. Validity and correlations

	ITSIC	Adap.	Align.	A.C.	F.P.	N.F.P.
ITSIC	0.933					
Adap.	0.611	0.894				
Align.	0.617	0.674	0.819			
A.C.	0.688	0.778	0.734	0.858		
F.P.	0.358	0.528	0.443	0.505	0.942	
N.F.P.	0.543	0.632	0.499	0.588	0.736	0.872

* Diagonal (Bold) : Square root of AVE

4.3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제시된 가설에 대해서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boot strapping 500회). 검증 결과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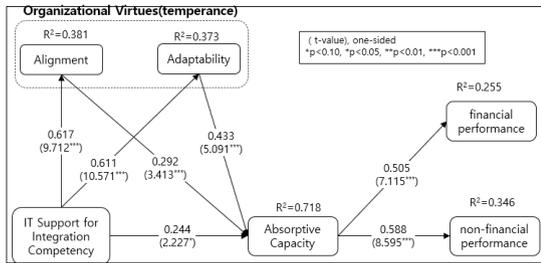


Fig. 2. Model Analysis results

PLS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 square 의 값의 효과 수준을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 0.13)로 구분하고 있다[48]. 본 연구 모형의 변수는 재무성과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0.26 이상으로 확인되어 경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조정($\beta=0.617$, $|t|=9.712$), 적응력($\beta=0.611$, $|t|=10.571$), 흡수역량($\beta=0.244$, $|t|=2.227$)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절제가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정은 흡수역량($\beta=0.292$, $|t|=3.413$)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적응력($\beta=0.433$, $|t|=5.091$) 역시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흡수역량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재무성과($\beta=0.505$, $|t|=7.115$)와 비재무 성과($\beta=0.588$, $|t|=8.595$)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다음은 조직의 미덕 및 흡수역량을 통한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Table 4). 본 연구 모형의 모든 경로에 대해서 조직의 미덕 및 흡수역량 변수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Hypothesis Testing Results

Path	β	S. Dev	t-value	p-value	Results
H1 ITSIC→Align.	0.617	0.063	9.741	0.000 ^{***}	Accept
H2 ITSIC→Adap.	0.611	0.059	10.379	0.000 ^{***}	Accept
H3 ITSIC→A.C.	0.244	0.082	2.972	0.003 ^{**}	Accept
H4 Align.→A.C.	0.292	0.089	3.271	0.001 ^{***}	Accept
H5 Adap.→A.C.	0.433	0.089	4.875	0.000 ^{***}	Accept
H6 A.C.→F.P.	0.505	0.069	7.345	0.000 ^{***}	Accept
H7 A.C.→N.F.P.	0.588	0.067	8.823	0.000 ^{***}	Accept

*one-side : $^{\dagger}p < 0.10$ ($|t| > 1.282$), $p < 0.05$ ($|t| > 1.645$), $^{**}p < 0.01$ ($|t| > 2.326$), $^{***}p < 0.001$ ($|t| > 3.090$)

Table 4. Indirect Effect

Path	β	S. Dev	t-value	p-value
ITSIC→Align→AC	0.18	0.062	2.924	0.004
ITSIC→Align→AC→FP	0.091	0.037	2.436	0.015
ITSIC→Align→AC→NFP	0.106	0.039	2.688	0.007
ITSIC→Adap→AC	0.264	0.064	4.146	0.00
ITSIC→Adap→AC→FP	0.133	0.041	3.265	0.001
ITSIC→Adap→AC→NFP	0.155	0.046	3.385	0.001
ITSIC→AC→FP	0.123	0.045	2.759	0.006
ITSIC→AC→NFP	0.143	0.052	2.74	0.006
Align→AC→FP	0.147	0.053	2.781	0.006
Align→AC→NFP	0.171	0.055	3.127	0.002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역량 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의 절제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절제, 흡수역량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역량을 확보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조정)와 변화 상황에 맞춰 조직의 활동을 신속하게 재구성(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식 관리 및 통합을 촉진하여 조직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어 흡수역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미덕인 조정과 적응력은 모두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조정은 조직의 비생산적인 활동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 조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에게 학습 기회 및 자원을 공급하여 흡수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응력은 외부 변화에 따라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전략 목표를 유연하게 변화 하게 하여,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유연하게 할수 있어 조직의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다. 조직 내에 지혜와 절제와 같은 미덕이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과 연관된다는 Chatterjee [21]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IT 기술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IT 역량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 윤리 차원까지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검증함으

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조직의 인프라인 IT의 지원과 조직의 미덕 간의 관계를 실증함으로 조직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확장하였다. 덧붙여 조직의 IT 기술 분야의 연구에 조직 윤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흡수역량의 선행 요인으로써 관리자의 태도 및 지향성, 조직의 다양성, 자원의 여유 등 다양한 요소가 선행 문헌에서 연구되었으나[24], 조직의 윤리적인 요소도 선행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규명함에 따라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직의 균형과 안정을 통한 유연성이 높은 조직에서 구성원의 '증폭 효과'가 궁극적으로 흡수역량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개인의 수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조직이 윤리적 미덕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의 구축을 통해, 조직의 성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신제품 개발 조직과 같이 흡수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 리더의 적응력의 미덕을 통해 개인의 흡수역량 강화가 조직성과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조정의 미덕은 리더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조직원들에게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검토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시사점이 가치가 있으나, 연구의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째, 조직의 미덕의 하위 변수에 절제 외에도 지혜, 정의, 용기 등의 항목이 있으나, 모든 항목의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하지 않았다. 향후 본 조직 윤리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3가지 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작아 구조방정식 모델 중에 PLS 분석을 사용하였다. 향후 명확한 구성 개념 사이의 구조적 관계 확인을 위해 표본의 수를 더 확보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H. Park, "Empowering Factor of IT Convergence Industr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1, pp.147-154, 2012.
DOI : <https://doi.org/10.14400/JDPM.2012.10.1.147>
- [2] B. Wernerfelt,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No.2, pp.171-180, 1984.
DOI : <https://doi.org/10.1002/smi.4250050207>
- [3] E. T. G. Wang, H. Wei, "Interorganizational Governance Value Creation: Coordinating for Information Visibility and Flexibility in Supply Chains", *Decision Sciences*, Vol.38, No.4, pp.647-674, 2007.
DOI : <https://doi.org/10.1111/j.1540-5915.2007.00173.x>
- [4] S. W. Floyd, B. Wooldridg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 Strate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7, No.1, pp.47-64, 1990.
DOI : <https://doi.org/10.1080/07421222.1990.11517880>
- [5] J. Karimi, Y. P. Gupta, T. M. Somers, "The Congruence between a Firm's Competitive Strate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Leader's Rank and Rol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13, No.1, pp.63-88, 1996.
DOI : <https://doi.org/10.1080/07421222.1996.11518112>
- [6] S. M. Wagner, C. Bukó,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Knowledge-Sharing in Networks",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41, No.4, pp.17-31, 2005.
DOI : <https://doi.org/10.1111/j.1745-493X.2005.04104003.x>
- [7] E. K. Clemons, Michael C. Row, "Sustaining IT Advantage: The Role of Structural Differences", *MIS Quarterly*, Vol.15, No.3, pp.275-292, 1991.
DOI : <https://doi.org/10.2307/249639>
- [8] A. S. Bharadwaj,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MIS Quarterly*, Vol.24, No.1, pp.169-196, 2000.
DOI : <https://doi.org/10.2307/3250983>
- [9] M. Wade, J. Hulland, "Review: The Resource-Based View and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Review, Extens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MIS Quarterly*, Vol.28, No.1, pp.107-142, 2004.
DOI : <https://dl.acm.org/doi/10.5555/2017212.2017218>
- [10] S. Chatterjee, S. Sarker, "Infusing Ethical Considerations in Knowledge Management Scholarship: Toward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4, No.8, pp.452-481, 2013.
- [11] S. Rivard, L. Raymond & D. Verreault, "Resource-based view and competitive strategy: An integrated model of the contrib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firm performanc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Vol.15, No.1, pp.29-50, 2006.
DOI : <https://doi.org/10.1016/j.isis.2005.06.003>
- [12] J. Peppard, J. Ward, "Unlocking Sustained Business Value from IT Investment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48, No.1, pp. 52-70, 2005.
DOI : <https://doi.org/10.2307/41166327>
- [13] G. A. Kim,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T Capability, and IT Support and

- Performance : The Moderating Effects of Environmental Dynamics and Management Support”, *Korean management Review*, Vol.45, No.5, pp.1587-1622, 2016.
DOI : <https://doi.org/10.17287/kmr.2016.45.5.1587>
- [14] M. Javidan, “Core Competence: What does it Mean in Practice?”, *Long Range Planning*, Vol.31, No.1, pp.60-71, 1998.
DOI : [https://doi.org/10.1016/S0024-6301\(97\)00091-5](https://doi.org/10.1016/S0024-6301(97)00091-5)
- [15] R. C. Solomon, “Corporate Roles, Personal Virtues: An Aristotelean Approach to Business Ethics”, *Business Ethics Quarterly*, Vol.2, No.3, 317-339, 1992.
DOI : <https://doi.org/10.2307/3857536>
- [16] T. A. Wright, J. Goodstein, “Character is Not “Dead” in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Individual Character and Organizational-Level Virtue”, *Journal of Management*, Vol.33, No.6, pp.928-958, 2007.
DOI : <https://doi.org/10.1177/0149206307307644>
- [17] A. Caza, B. A. Barker, K. S. Cameron, “Ethics and Ethos: The Buffering and Amplifying Effects of Ethical Behavior and Virtuous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52, No.2, pp.169-178, 2004.
- [18] S. H. Ko, T. W. Moon, “The impact of virtuous behavior in organization on the employee's attitude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and Collective Self Estee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3, No.5, pp.1-34, 2014.
- [19] S. H. Ko, T. W. Moon, “The Influ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Virtuous Behaviors on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reating research model for the virtuous behavior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4, No.4, pp.31-66, 2015.
- [20] S. H. Lee, S. H. Ko, T. W. Moon,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virtue perceived by organizational members and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5, No.5, pp.81-108, 2016.
DOI : <https://doi.org/10.29214/damis.2016.35.5.005>
- [21] S. Chatterjee, G. Moody, P. B. Lowry, S. Chakraborty, A. Hardin, “Strategic relevance of organizational virtues enabled by information technology in organizational innovation”,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32, No.3, pp.158-196, 2015
DOI : <https://doi.org/10.1080/07421222.2015.1099180>
- [22] A. S. Masten, J. J. Hubbard, S. D. Gest, A. Tellegen, N. Garnezy, M. Ramirez,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1, No.1, pp143-169, 1999.
DOI : <https://doi.org/10.1017/S0954579499001996>
- [23] W. M. Cohen, D. A. Levinthal,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pp.128-152, 1990.
DOI : <https://doi.org/10.2307/2393553>
- [24] C. M. Koo, J. I. Choi,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Absorptive Capacity on Firm's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Vol.37, No.3, pp.515-536, 2008.
- [25] M. G. Lee, Y. W. Seo, “The Effect of Participant Personal Competence and Project Characteristic on Performance in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Focused on Knowledge Sharing and Supplier Absorption Capac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209-221, 2019.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209>
- [26] A. Malhotra, S. Gosain, O. A. El Sawy, “Absorptive Capacity Configurations in Supply Chains: Gearing for Partner-Enabled Market Knowledge Creation”, *MIS Quarterly*, Vol.29, No.1, pp.145-187, 2005.
DOI : <https://doi.org/10.2307/25148671>
- [27] J. Barney,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99-120, 1991.
DOI : <https://doi.org/10.1177/014920639101700108>
- [28] R. Makadok, “Toward a synthesis of the resource-based and dynamic-capability views of rent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2, No.5, pp.387-401, 1991.
DOI : <https://doi.org/10.1002/smi.158>
- [29]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56, No.3, pp.227, 2001.
- [30] S. A. Zahra, G. George,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2, pp.185-203, 2002.
DOI : <https://doi.org/10.5465/amr.2002.6587995>
- [31] J. Barney,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99-120, 1991.
DOI : <https://doi.org/10.1177/014920639101700108>
- [32] R. Amit, P. J. H. Schoemaker, “Strategic assets and organizational r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4, No.1, pp.33-46, 1993.
DOI : <https://doi.org/10.1002/smi.4250140105>
- [33] C. B. Gibson, J. Birkinshaw, “The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7, No.2, pp.209-226, 2004.
DOI : <https://doi.org/10.5465/20159573>
- [34] J. Vega-Jurado, A. Gutiérrez-Gracia, I. Fernández-de-Lucio,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firm's absorptive capacity: beyond R&D”, *R&D Management*, Vol.38, No.4, pp.392-405, 2008.
DOI : <https://doi.org/10.1111/j.1467-9310.2008.00525.x>
- [35] J. J. P. Jansen, F. A. J. Van Den Bosch, H. W. Volberda, “Managing Potential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How Do Organizational Antecedents Matter?",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8, No.6, pp.999-1015, 2005.
DOI : <https://doi.org/10.5465/ami.2005.19573106>

[36] F. J. Van den Bosch, H. W. Volberda, M. D. Boer, "Coevolution of firm absorptive capacity and knowledge environment: Organizational forms and combinative capabilities", *Organization science*, Vol.10, No.5, pp.551-568, 1999.
DOI : <https://doi.org/10.1287/orsc.10.5.551>

[37] D. Leonard-Barton, I. Deschamps, "Managerial influ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y", *Management science*, Vol.34, No.10, pp.1252-1265, 1988.
DOI : <https://doi.org/10.1287/mnsc.34.10.1252>

[38] X. Martin, R. Salomon, "Knowledge transfer capac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34, No.4, pp.356-373, 2003.

[39] A. Zaheer, G. G. Bell, "Benefiting from network position: firm capabilities, structural holes, and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6, No.9, pp.809-825, 2005.
DOI : <https://doi.org/10.1002/smi.482>

[40] G. N. Chandler, S. H. Hanks,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businesse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8, No.5, pp.391-408, 1993.

[41] D. H. Roh, H. Y. Park, S. G. Ch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ve Competence on Firm's Performance in Korean ICT SME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ol.13, No.4, pp.217-231, 2018.
DOI : <https://doi.org/10.16972/apjvbe.13.4.201808.217>

[42] K. Martell, S. J. Carroll, "Which execu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top management team are associated with higher firm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34, No.4, pp.497-512, 1995.
DOI : <https://doi.org/10.1002/hrm.3930340403>

[43] G. K. Shi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SEM) with SmartPLS 3.0, p.132, ChengRam Books, 2018.

[44] C. M. Ringle, S. Wende, J.-M. Becker, "SmartPLS 3." Boenningstedt: SmartPLS GmbH, <http://www.smartpls.com>, 2015.

[45]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pp.74-94, 1988.

[46]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DOI :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104>

- [47] W. W. Chin,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Vol.295, No.2, pp.295-336, 1998.
- [48] E. S. Han, B. K. Chung, S. B. Lee, E. H. Sung, "A Study on Applicable Level of Entrepreneurship: Focus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6, No.2, pp.157-185.
DOI : <https://doi.org/10.29214/damis.2017.36.2.009>

권 재 현(Jae-Hyeon Kwon)

[정회원]



- 2009년 2월 : 광주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공학석사)
- 2019년 2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기술경영, 지식경영

서 영 옥(Young-Wook Seo)

[정회원]



- 200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관심분야>

경영, IT컨설팅, 지식경영